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이드



위대한 선택은 위대한 포기

옛날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시 중에서 프로스트의 '두 갈래 길'이란 시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삶의 도정 속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때면, 또는 자신이 팔방미인이 아니라서 부득이 어느 한 길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에는 더욱 더 이 시를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갈등과 주저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확고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순간이기도 하며, 최선의 가치를 채택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부처님도 우리들과 같은 선택의 갈림길을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자 삼칠일간 법열에 잠겼다고 한다. 이때 당신이 깨달은 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일반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내가 깨친 법을 전하려 해도 저들은 어리석어 믿고 수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헐뜯고 비방하며 삼악도에 떨어져 많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 회의하며, 대중교화를 포기하려고 한다. 이때 범천이 나타나 법을 청하고 있다. "중생세간이 비록 번뇌와 망상에 뒤섞여 있고 청정하지는 못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도 그러한 번뇌와 망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근기에 맞추어 설법하신다면 중생들이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범천이 설법을 권유하는 이유이다. 불전에 나타난 이때의 장면은 논리적인 비약이 심하고 신화적인 성격이 농후하지만 범천의 세 번에 걸친 간청과 부처님의 세 번에 걸친 거절의 형식을 거쳐, 마침내 설법을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법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장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다만 부처님의 위대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기 작가들이 미화한 것 정도로 생각한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장면에 불교의 기본적인 종교적 특징이 들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리를 깨달았더라도 그것으로 중생들을 깨우쳐 주지 못한다면 그 진리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깨달았으되 혼자만 즐기고 만다면 진정한 의미의 깨달은 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길을 떠난다는 것은 비로소 진정한 부처가 탄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원대하고 끝없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극적이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동적인 것임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후 전개되는 수많은 가르침은 모두 중생들을 위한 수기설법이라는 점에서 길 떠나는 이의 강한 신념과 지혜를 엿보이고 있다.

필자가 재미있게 생각하는 점은 법열에 잠긴 삼칠일간에 범천과 설법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범천은 인도의 전통 민속과 브라만교에서 우주를 주재하는 임금이며, 인도고대 신화 속에서는 창조주로 등장하고 있다. 부처님이 막 깨달은 당시에 한정해서 생각해 본다면 범천이 부처님을 찾아와 설법을 권유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천과 진행한 문답이 부처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심리적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자연환경과 문화적 환경이 열악했던 당시의 인도에서 중생들을 위해 한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설사 그것이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안락과 주변의 일체를 포기하고 대중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범부와 성인의 길이 그래서 다르다할지라도 너무나 크고, 어렵고, 고독한 일이기에 부처님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 같으면 어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쉽게 살 수 있는 삶의 길과 어렵지만 가치있는 삶의 길에서 두 길을 동시에 갈 수 없다면, 부처님께서도 당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들과 같이 회의와 주저, 갈등과 선택 그리고 번복을 수십번씩 하지 않았을까. 극적으로 범천의 권유에 의해 위대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한편 위대한 포기를 전제하고 있다. 포기 했기에 위대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연출하게 만드는 조연인 범천의 정체는 무엇일까? 필자는 범천을 깨어있는 이성이라 해석한다. 편안하지만 작고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렵지만 넓고 큰 길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부처님의 내면의 소리, 이성의 소리였던 것이다.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일반 범부들은 활짝 열려 있는 천당문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굳게 닫혀 있는 지옥문으로 들어가려 아우성친다"고 말하고 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의 당위성과 참다운 가치의 문제를 둘러싼 양보할 수 없는 내적 갈등 속에서 이성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부처님의 출발은 이성의 승리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위한 헌신' 일체의 것 포기
부처님 선택 이성의 빛난 승리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인간 참모습 회복이 조사선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답해 봐."

4일, 서울 상도동 백운암에서 만난 고불총림 방장 서옹 스님은 말씀을 마치시면서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셨다.

"참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이 잘 사는 길입니다."

활짝 웃으셨다. 아주 맑게.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미소, 스님의 어떤 가르침보다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다.

91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선(禪)을 바탕으로 한 참사람 정신을 사회 보편의 정신으로 세워 나가기 위해 서초동 참사람 운동본부 설립 준비에 바쁜 스님께 조사선과 한국불교에 대해 여쭈었다.



가까이서 뵌 큰스님

서 옹 스 님 (고불총림 방장)

◆깨닫기 위해서는 오로지 '조사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조사선이어야 하는지요.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조사선이지요. 인간 세상에서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말하지만, 선에도 악이 항상 붙어있고, 참에도 거짓이 붙어 있으며, 아름다움의 이면에도 추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을 초월한 것이 종교이고, 이 종교와 인간까지 초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조사선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조사선뿐입니다."

◆지금 제방 선원에서 조사 선풍이 올곧게 유지되고 있는지요. 선지식이 수좌들을 제접하는 모습도 보기 힘들고, 견성에 대한 치열함이 불교 전체 수행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 불사와 기도 중심의 분위기가 대세인 듯합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합니까.

"옛날부터 그러한 폐단은 많았습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수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조사선의 근원을 올바로 가르치는 곳이 드문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럴수록 조사선을 더 열심히 닦아야 합니다."

◆조사선 즉 간화선은 일반인들로서는 다가가기 힘든 수행법입니다. 심지어는 조사선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많은데, 과연 그런지, 그렇다면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또 선방 수좌들만으로 조사선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보십니까.

"올바로 하면 전혀 힘들 것이 없는데,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큰 스승 아래서 지도 받으면 쉬운데, 다들 그렇게 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하다보니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선은 선방 수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승속을 떠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수행법들이 일반인과 불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수행법이라 불리우는 아봐타나, 명상요가 등이 그것입니다. 또 불교 내부에서도 위빠사나와 같은 초기 불교의 수행방법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겉모양새로만 본다면, 이들 수행법의 등장이 조사선의 위상 자체를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곧 조사선의 수행 방법에 효용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르게 하면 쉬운데, 잘못 알고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봐타나 명상요가 같은 수행법은 인생의 깊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위빠사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빠사나는 산란한 정신을 안정시키기는 하지만 생사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진리를 꿰뚫는 참선이 필요합니다. 조사선만이 관습과 위선, 범주화된 인간의 한계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참선은 더 이상 불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선을 보편적 정신으로 인식하고, 타 종교에서도 개인적 차원이나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전반의 수행 풍토를 보면 기도나 염불 등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선(禪)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조사선의 껍데기만

서옹스님은? ——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받들어 무명과 욕망의 장애를 벗어버리고 분별과 아집을 타파하여 참나(眞人)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서옹 큰스님은 70년대부터 조사선으로 세계 평화와 자유를 이루기 위해 참사람 운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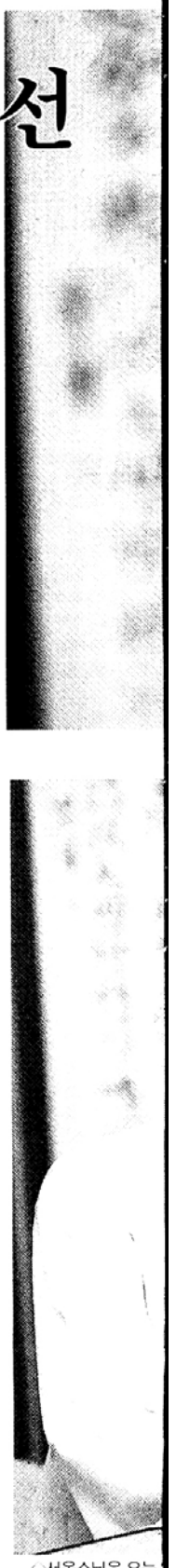
스님은 1912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32년 백양사 만암 스님 문하에서 득도했다. 1935년 중앙불교전문대학교, 1941년 일본 경도임제대학교를 졸업했다. 일본 임제종 총본산 묘심사에서 수선, 3년 안거를 성만했다. 1962년 동국대 선학원장, 도봉산 무문관, 동화사, 봉암사, 백양사, 봉암사 조실을 역임했으며, 74년~79년까지 조계종 5대 종정을 지냈다.

현재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이다.

세계평화 · 자유 위해 '참사람운동'

자유자재 절대평등 대자대비

조사선 수행은 참사람의 길



◇서옹스님은 오는 … 의 가르침을 설할 계획

韓國佛教 太古孫
(太古宗 19期) 道伴에 알림

전국의 山下 道場에서 修行精進 하시는 태고종 19기 도반스님네의 法體康寧하심을 발원 합니다.
수계산림후 금일에까지 面面히 이어저 오던 19기 僧伽團體(金剛僧院)에서 도반상호간의 義理를 돈독히 하고 수행풍토와 승가의 位相을 傳承하여 불교 발전을 도모하고 佛家의 慧命을 전승 하고자 하고 19기 도반의 結集을 확고히 하는 法席을 마련하여 합동득도 19기 도반스님네의 관심과 성원으로 隨喜同參하시어 琢磨하여 주시고 본회의 위상을 高揚코저 하고니 도반스님네의 연락 바랍니다.

韓國佛教 太古宗 19期
僧伽團 金剛僧院

연락처 011)897-0120
032)435-0478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다이어트를 위한 절식요법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최근 정치인들과 일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자연발효 원액을 이용한 효소 절식법이 바람처럼 일고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기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www.chorokwon.com

서북토종오가피농장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농장에서는 오직 유기농법으로만
오가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판매하고 있습니다.



견학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제 품 : 오가피추출액, 묘목
●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 3리 9-5
서북오가피농장
전화 : 031-682-5033
팩스 : 031-682-5034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익일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탁월한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관여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계발약사(한약사) 박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숲, 담배해독
· 피부뮤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켐메칼라이프 Co.
C.W. (구)한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